



한국건축산업대전 2012 개막식



한국건축산업대전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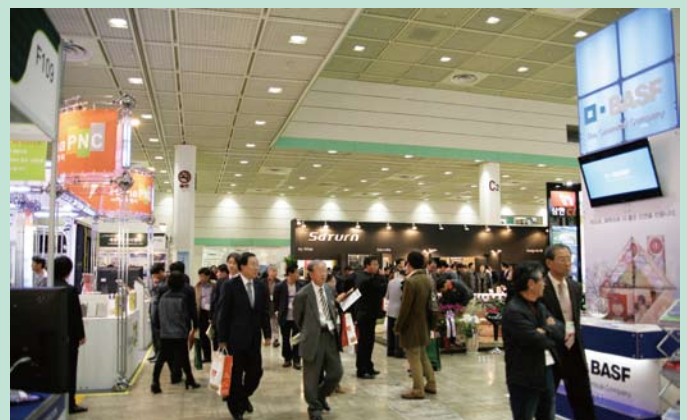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2013. 10. 23(수)~26(토) Coex 1층 A홀

건축전문전시회! B2B전시회! B2G전시회!



전시장 전경



전시장 전경



각종 세미나



우수건축자재추천제 심사

행사의 목적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우리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 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 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 지원을 통해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이하 KAFF)은 이러한 협회 설립 목적에 맞는 건축 설계를 건축사들이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축을 짓는다는 건설의 개념에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하면 건축사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건설 회사를 먼저 떠올린다.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면 건설 과정에서 절차 없이 자재가 뒤바뀌어 생각지 못한 건물이 태어나기도 한다. 건축사들이 디테일하게 설계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도면에 표기해 많은 변수를 둔 책임도 있다. 구체적으로 재료와 색상, 물성을 지정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 현실적으로 자재선택권을 시공사나 건축주가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설계자가 자기 설계에 들어가는 자재의 성질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KAFF는 건축자재에 대해 건축사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자재 생산자 및 공급자에게 적은 경비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건축은 공급 위주의 정책 속에서 질이 높아지기가 쉽지 않았다. 건축 설계도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경쟁하다보니 건축 자재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모델하우스와 목업, 샘플에 의존하여 설계가 형태에 국한된 경우도 많았다.

우리는 건축은 예술이라고 한다. 예술은 의식주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다. 공공재는 시장을 통하지 않고도 빈부귀천을 떠나 모두가 소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다. 즉 건축은 소유자는 있으나 사용자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공공재인 것이다. 바로 KAFF가 이런 우리 사회의 건축에 대한 공공재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문가 단체가 개최하는 KAFF에 많은 이들이 와서 그들이 시행하려는 건축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취한다면 KAFF의 행사 목적과 취지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 최근의 추세는 작은 공간의 개념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과 공간의 평수가 회자되는 시기가 있었다. 집은 커지고 식구 수는 줄어드는 사회현상 속에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 건축자재의 정보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건축사가 자기 설계에 대한 작은 부분까지도 완성도를 높이려면 자재에 대한 정보 취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KAFF는 건축사들의 건축에 대한 성취동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행사 개최성과

시대는 항상 변하고 있다. 시기마다 여러 사회적인 요소와 더불어 트렌드 또한 변한다. 지금은 친환경과 녹색건축이 화두이다. KAFF의 개최 목적이 정보 전달이듯, 건축 자재 트렌드도 그동안 사양기반에서 최근 성능 기반으로 뚜렷이 변해왔다. 우리협회의 성능 인정 기준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KAFF를 통해 2회째 '우수건축자재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서히 변화의 트렌드에 맞춰 정보 제공의 한 목적을 달성하려 노력하고 있다.

건축, 건축사, 협회 홍보효과 및 자재 정보 제공

올해로 8회째를 맞는 KAFF는 전국건축사대회와 함께 가장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는 행사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참석하는 대외적으로 위상이 높은 행사이다. 매년 100여개의 자재업체가 참가하고 3만여 명의 방문객들에게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열린마당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또한 전시회를 통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우리협회의 홍보와 추천자재 총람집인 KAFF 카탈로그를 통해 회원의 정보 제공 및 자질 향상에도 기여하



업무협력 추진식



건축자재전시 사업설명회

고 있다. 특히 우수건축자재추천제는 관련업계의 홍보와 시장개척, 신기술 등 정보교류에 앞장서서 건축자재 DB구축의 초석이 되고자 한다.

교류 확대, 전시 효과 극대화 및 대외적 위상 강화

우리협회는 KAFF를 통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의 MOU 체결을 통한 건축 관련 분야와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였다. 성격이 비슷한 전시회를 통합 개최하여 전시회의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며, 올해는 국토교통부와 ‘녹색건축 한마당’을 동시개최, 전시효과를 더욱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건축 문화대상, 한국승강기안전엑스포, 스마트그린빌딩엑스포 등 ‘Green City Week’로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여 교류의 확대도 가져왔다.

또한 건축사 교육과 미술전, 체험 이벤트 등을 포함하는 전시회를 통해 교육 기회의 제공과 회원 간의 교류의 장도 확대하였다. KAFF

를 통해 건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정부포상제도인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정부, 공공기관, 자재 회사, 건설 관련업체 등을 아우르는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로 도약하고 있는 바, 대외적 위상을 한층 드높이고 있다.

자립적 운영, 우리협회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외행사

KAFF는 우리협회 대외행사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지만 특별회계로 전시회 참가업체의 참가비와 광고비로 자립적으로 운영되어 회원들의 회비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개최되는 바, 회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인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가업체와 전시품목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람한다면 입소문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업체들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행사규모도 커지고 수익도 발생하여 회원들에게 풍족한 볼거리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년도별 개최결과 Review(2006~2012년)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주 제	함께하는 건축	건축의 진화, 건축 속의 사람	건축, 삶의 터를 디자인 하다	제로혁명; 친환경건축을 디자인한다	친환경건축의 미래 (Co2 zero, Energy zero, Waste zero)	친환경 건축재료의 발견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NETWORK
전시일정	2006.9.13~17	2007.10.2~6	2008.10.7~11	2009.10.7~11	2010.10.20~24	2011.10.27~30	2012.10.23~26
전시장소	코엑스 C홀	코엑스 B홀	코엑스 A홀	코엑스 C홀	킨텍스 3홀	코엑스 A홀	코엑스 C홀
참가업체	89개사	99개사	101개사	98개사	84개사	73개사	75개사
전시규모	237부스	348부스	431부스	282부스	368부스	209부스	240부스
참 관 객	30,400명	37,400명	39,600명	35,921명	28,371명	30,224명	20,183명

우수건축자재추천제의 활성화를 통한 건축전문전시회

지금까지 2회에 걸친 추천제로 약50개의 우수 자재가 추천되었다. KAFF는 국내 유일한 법정건축전문단체가 개최하는 전시회로서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추천제를 시행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자재 정보 구축과 건축사의 자재선택권 확립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또한 추천된 자재가 현장 및 설계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자재업체와의 밀도 있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건축전시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금년도 행사개요

올해로 제8회인 KAFF 2013은 오는 10월 23일(수)부터 26일(토)까지 4일간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된다. 더불어 다양한 동시행사와 건축사교육이 함께 한다.

이번 전시회는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을 주제로 우리협회가 주최하여 사업위원회와 전시사업팀이 담당하고 코엑스가 공동주관한다. 후원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함께 한다.

동시행사로는 국가건축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녹색건축 한마당'과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공모전'과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녹색건축박람회, 밸브·파이프·펌프기술산업전이 통합적으로 개최되어 많은 건축건설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방문과 네트워킹이 예상된다.

더불어,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우수건축자재추천심사, 대한민국신인건축사대상, 건축사실무교육 및 건축계,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캐나다우드, 마이다사이티의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KAFF만의 차별화된 강점이자 우리협회만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우수건축자재추천제'는 우수 제품과 기업을 발굴하여 회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전시기간동안 행사에 방문한 건축사 모두가 제품평가에 참여하여 건축사의 대외적인 위상을 높이고 올바른 자재선택의 길잡이로 새로운 건축트렌드를 만들고자 한다. 2012년부터 제작된 자재총람집 『KAFF CATALOG』가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중이다.

현재 전시회 참가업체를 모집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은 8월 30일까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kaff.biz)에서 확인바란다.

문의는 전시사업팀(T.02-3415-6866/6867)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kaff.biz



조성원 단장, 서용주 이사, 장현수 위원장, 사업위원회 위원_고순만, 권영주, 김은철, 김성진, 김현미, 서광우, 이규환, 조정만, 주상표

위원장 한마디

KAFF 2013이 8회째를 맞이함에 따라 건축사들의 위상과 업무영역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건축사들의 축제 및 교류의 한마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행사는 전국건축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은 개최 목적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건축사들의 권리와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협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유관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게 결집된 힘과 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KAFF 2013은 이와 같은 효과를 내기위한 좋은 한마당이 될 것으로 여긴다.

또한 정부행사인 녹색건축한마당이 동참함에 따라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 및 에너지 등 국가정책에 기여하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문가들로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행사 주제인 '더 나은 건축을 위하여, GREEN FESTIVAL'에 맞추어 우리협회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KAFF 2013이 되도록 하자!!!